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총선 후 양당 모두 리더십 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황우여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 2년에 4번째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은 경쟁적으로 보인다.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의 출마'를 예상하지만 한동훈의 거취가 결정적이다. 스스로의 결정이든 끌려나오는 것이든 그의 당권도전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재출마한다면 사실상 추대가 될 전망이 대부분이다. 양당 리더십 재편의 핵심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럽다. 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4월 하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52%)은 반대한다. 찬성은 43%.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는 58%가 그의 출마에 찬성한다.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장면은 5월 초 조사에서도

당심 vs 민심

확인된다.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52%는 반대하고 찬성은 35%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는 비슷하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분포를 보인다. 그들 중 56%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지지한다. 그의 당권도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36%다.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그의 전당대회 출마에 찬성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일 100%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한동훈의 쉬운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 5월 조사에서 한동훈을 포함한 여러 출마 유력 후보들의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묻은 결과도 앞선 여론동향과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이 적합하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48%에 이른다. '원희룡(13%), 나경원(12%), 유승민(9%)'을 압도한다. 한동훈(26%)은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도 유승민(28%)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에 대한 여론도 한동훈 당권도전의 여론 흐름과 비슷하다. 4월 초 조사들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여론이 높다. '찬성 46% vs 반대 49%' 또는 '찬성 43% vs 반대 48%'다.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그들은 이 대표의 연임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찬성 61% vs 반대 32%' 또는 '찬성 68% vs 반대 26%'다. 보수적 유권자들은 이재명 연임에 부정적이다. '찬성 30% vs 반대 68%' 또는 '찬성 23% vs 반대 74%'다. 중도층은 일반 국민의 여론동향과 유사한데,

'찬성 40% vs 반대 45%'다.

5월 초 조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일반 국민의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찬반의견이 집전 양상으로 바뀐다. '찬성 44% vs 반대 45%.' 한 달 전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5월 초에는 찬반 비중이 붙었다.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냐의 간극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찬성 83% 반대 12%.' 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47%'다.

국민의힘은 대표 선출 절차를 논의해야 할 전당대회 준비와 선관위를 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당원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당 지도부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넘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국회의원 50%+당원 50%를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 모두에게 당원과 지지층은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원이 100만 명 넘고 당비가 연간 180억원"이라고 한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엇비슷할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475억원. 민주당에 223억원, 국민의힘에 202억원으로 국민 세금이다. 2022년 양대 선거나 올해 총선처럼 선거가 있을 때 국고보조금은 통상시의 두 배에 이른다.

양당의 리더십에서 민심과 당심은 어떻게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할까? 양자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 그들은 선택하고 유권자는 평가한다. 선택의 시간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다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져서 고생을 했다. 아파 며칠은 가지 않았다 싶다. 교수들과 함께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선산에 갔다가 경험한 일이다. 일행 중에는 성큼성큼 앞서 나가는 분도 있었다. 몇 년째 맨발 걷기를 해서 단련이 되어 이 정도는 감각도 없다고 했다. 사실 맨발 걷기를 하러 올 때는 이런 통증을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해변의 고운 모래 위를 걸을 때 느껴지는 발가락 사이에 간질거리는 촉감을 기대했었다. 또한 고운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때처럼 발바닥을 그리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부드러움을 만끽하고 싶었다. 영광의 물무산 황토길 걷기를 작년에도 갔었는데 기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는 바람에 맨발 걷기는 하지 못했다. 그때의 아쉬움을 이번에는 맑것 누리리라 생각 했건만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나는 맨발로 걷는 내내 후회하듯이 이렇게 투덜거렸다. '아까 강선산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 놓은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신발을 벗어 놓고 올 것이 아니라 들고 왔어야 했다.' 이런 저런 후회가 들었지

맨발로 걸으며 드는 생각들

만 다른 분들을 생각하여 참고 걸었더니 어느덧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 거기까지가 끝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내려오는 길은 통증이 더했다. 빨리 내려가서 신발을 신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은 가득 찼다. 출발 지점에 도착하여 흐르는 물에 씻고 양말과 신발을 신었다. 아!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맨발 걷기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걸까. 찾아보니 과학적인 근거는 미미하지만 좋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느끼기에는 몇 시간을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와 더불어 심신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 자거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작년에 출간된 '맨발로 걷다 보면'이라는 무라나카 리에의 그림책이 있다. 맨발로 걷는 유익함을 잠시 잊은 우리들에게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감(손)이라는 오감을 많이 이해하고 표현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발로 느낄 수 있는 촉감이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맨발로 걷다 보면 자연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고 시냇물의 시원함과 간지러움을, 그리고 매끄러운 감촉으로 긴 세월을 부딪치며 지나온 자갈들의 세월을 읽을 수 있다. 축축한 흙, 작은 돌맹이의 지압, 뜨거운 아스팔트, 폭신한 풀 등의 촉감을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가톨릭 성경은 시편 66편 6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바다를 마른땅으로 바꾸시어 맨발로 건너 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네." 내가 아는 그 어떤 번역본을 뒤져봐도 흥해를 맨발로 건너갔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흥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갈 때 그 현장을 피부로 몸소 체험하는 생동감을 선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다보면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땅을 옮겨주며 그 땅을 밟는 장면들이 있다. 때로는 땅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말이다.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것 같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몇 년새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좋은 산책로들을 조성하는데 투자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걷기는 건강에도 좋고 여유로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처럼 다른 감각으로 지구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이 자연의 일부인임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다. 아울러 신앙의 관점에서도 신을 벗어 버리면 죄인되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찬송을 흥얼거리며 걸을 수 있겠다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거 같다. 아울러 죄된 습성을 벗어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적당한 곳을 찾아 맨발로 걸으며 그 감촉을 느껴보자.

기고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

"지인 받을 땐 한국식, 봉양할 땐 미국식?... 아들만 보면 화가 난다"는 모매체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내용 인즉슨, '자식 성공'이 지상목표인 아내의 요구에 따라 평생 전세를 살며 아들 교육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미국 유학까지 보냈다는 인터뷰. 그러나 아들은 귀국 후 결혼해 독립하더니 기대했던 한국식 효도는커녕 연락마저 뜸해 '이게 미국식?' 하고 반문하며 자식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아버지의 사연이었다.

기사를 정독하며 "아들만 보면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아들(여학)이 아니라 "OO이를 보면 화가 난다"로 말할 수는 없을까? 의문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문제의 논점이 달라진다. 보편적 전통문화에서 구체적인 개인 OO이의 문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세대차, 효도 운운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기사화되는 일은 요즘 세대에 흔하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 불협화음의 불씨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진단결과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개인화에 즈음하여

현대 한국사회는 급격한 '개인화'의 영향으로 재편, 재구축되었으며 이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성세대가 적응, 편승해야 하는데 진행속도가 너무나도 급격한 나머지 여러 방면에서 세대차 즉,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식자들은 작금의 시대정신으로 기후위기, 격차사회, 페미니즘을 꼽는다. 필자는 여기에 '개인화', 즉 개인주의를 더하고 싶다. 그리고 미리 언급해두자면 개인주의의 상대어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라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근대 서구의 18세기 즈음에 '개인'이 탄생했다. 서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청년층에서는 이미 '개인화'가 정착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개인을 억압하는 전통은 부정되거나 재편되었고 회사동료, 친족, 가족 간의 인간관계 또한 그 형태가 변화 내지는 파편화되었다. 그럼에도 기성세대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서를 고집하며 '인간은 사회(공동체)적 동물이다'는 슬로건 아래 '리떼'와 '꼰대'를 재생산한다.

그렇다면 본래 '개인(individual, 個人)'이란 어떤 무엇인가? 인문학, 즉 인간학은 이를테면 '개인'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의 결정체라 볼 수 있겠다. 서구 근대에 탄생한 '개인'은 오랜 시간 사회 속으로 뿌리내리며 근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생성해왔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개인보호법, 개인회생 등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근 청년층에서 화자되는 '개인의 취향', 일명 '개

취' 또한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한다. 즉 나의 인생은 나의 판단과 선택 하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한다.

이쯤해서 서구 '개인'의 학술적 특성을 언급해보자면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자기실현, 프라이버시(privacy), 자기통제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작금에 가장 활발히 실현 중인 항목은 자율성 및 자기실현, 그리고 여기에다 자기자신에 대한 배려를 덕목으로 한 프라이버시이다.

철학자 이진우는 저서 '개인주의를 권하다'에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에 몰두하고 싶은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삶의 기준을 '나'로 세우라고 조언한다. 덧붙이자면 정부 정책의 기준점 또한 '개인'으로 바뀌어야 실제가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필자는 '개인의 존엄성'을 거론하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한 인간을 '개인'의 인격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상대적 강자로서의 당신은 백전백패!"라 감히 경고하고 싶다. 아이건, 노인이건, 여자건, 외국인 노동자이건, 직장 후배이건, 군대 후임이건, 나이 어린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성소수자이건. 사회가 명명한 약자적 명칭을 뚫고 들어가 인간 그 본모습과 만나라. 그러면 편견도 없이, 오로지 하나의 개인으로 대하라. 그럴 수 있는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본래의 항목에 적합한 '개인'을 도야하라! 이는 '너와 나' 상호적 미션이다.

社說

문화 예술 접목한 '더 현대 광주' 세계적 핫플로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세트의 하나인 '더 현대 광주'가 건축 디자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주체인 (주)현대백화점은 그제 광주시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공개했다. '더 현대 광주'는 알려진대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연면적 30만㎡의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더 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하는데 현대백화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복합쇼핑몰이다.

관심을 끈 것은 처음 공개된 설계적인 데 러던의 테이트 모던,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작풍으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예향의 고장' 광주의 정체성을 잘 담아냈다. 기와 지붕과 마루 등 전통문화 요소를 백화점 건물과 접목해 광주의 랜드마크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가 크다. 현대백화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의지를 보이는데다 광주시도 도시 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한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다만 더 현대 광주가 세계적인 핫플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난 해소라는 난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더 현대 광주에서 광주 시내로 이어지는 거리에 복합쇼핑몰만 두 개가 들어설 예정인데 광주역이 구상하는 지하철 연장안 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력 도시'를 '꿀잼 도시'로 바꾸겠다는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성공 여부가 가장 먼저 사업 추진에 나서는 더 현대 광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규모역 안장 범위'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지난 33년동안 지속되어온 '5·18 규모역' 안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장 범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세부적인 안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5·18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규모역 안장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광주시장에게 정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5월 단체는 안장 자를 5·18 관계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민주열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 북구 망월동의 5·18 규모역은 1976년 시립묘지로 조성된 후 1980년 5·18 희생자 126구가 안장되면서 5·18 묘역으로, 1997년 이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로 승격됐다.

현재 규모역에는 총 497기의 묘소가 있는데 5·18 관계자 153기, 민주열사 60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3기 등이 안장돼

있다. 민주열사 가운데에는 1987년 6·10 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분신한 박승희 열사 등이 묻혀 있다.

5·18 규모역을 둘러싼 안장 논란이 제기된 건 1987년 이한열 열사 이후부터다. 5월 단체측은 민족민주열사를 계속해서 안장하다 보면 5월 유공자 보다 민주유공자의 비중이 더 커져 규모역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추모연대 측은 이한열 열사 이후 민주열사들을 안장하면서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며 맞서고 있다.

'5·18 규모역' 안장 논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 5·18 유족, 시민 등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모조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규모역의 안장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無等鼓

지금의 50대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선배 부모님들의 '회갑연'에 인사 드리러 가는 것은 희식 참석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입사 초기 회갑을 맞은 선배의 아버님 앞에서 동기들과 함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라며 큰 절을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2000년을 전후로 회갑연은 점차 사라졌다. 대신 70세나 80세에 생일잔치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됐고 근래에는 그것도 돌 중 한번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조경에서 배운 잔치였다.

세종실록에는 "100세 된 노인은 세상에 드물다. 해마다 쌀 10석을 지급하고 매월 술과 고기를 보내 줘라. 월말엔 그 수효를 기록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듯이, 노인의 장수는 예로부터 축하와 존중의 대상이었다.

현대에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군 단위 향교 주관으로 장수 경로잔치를 열고 있으며 어버이날이 낀 5월에는 아파트 단위로 노인 위안잔치를 여

경로잔치

는 곳도 많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같은 경로잔치가 오히려 노인들을 섭

내에 맞춰 장수를 축하하려는 잔치는 옛날부터 있었으며 특히 행사로 여겨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노인들을 초청해 양로연(養老宴) 또는 기로연(耆老宴)을 열었다. 세종시대 법제화된 양로연은 한양에서는 왕과 왕비가 대궐에서 배풀었고, 같은 날 지방에서는 수령이 주재했다. 양로연은 대부분 80세 이상 노인을 초청해 열었으나 70세 이상일 때도 있었다. 또 기로연은 정2품 이상을 지낸 70세 이상의 원로

로 노인 위안잔치를 여는 곳도 많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같은 경로잔치가 오히려 노인들을 섭섭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국내 여러 아파트 단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버이날 경로잔치나 선물 제공 기준을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일부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와 복지 정책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65세인 노인의 기준 나이를 상향해야 할 때이다.

/채희중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국문·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